

LOCAL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진도, 4년 만에 인구 ‘증가세’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생활여건 개선 정책 효과
출산장려금·입학축하금·청년 주거 지원 등 주요해남, 스마트폴 설치 확대
10개소... 도시서비스 향상

해남군은 군민안전 확보와 스마트 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폴 구축을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폴은 가로등 기능과 함께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책대, 홍보 영상 스크린 등을 설치해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다기능 스마트 시설물이다.

밤길을 안전하게 밝히는 LED 조명과 함께 24시간 빈틈없이 주변을 감시하는 고화질 CCTV, 각종 홍보 영상을 제공하는 스마트제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제센터와 연결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과 2024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해남읍 공공도서관 등 거점지역과 섬 지역에 스마트폴 6식과 CCTV 57대를 설치했다.

‘똑똑한 가로등’이라 불리는 스마트폴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은 물론 군민들의 안전 체감도와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8239@

함평, 깨끗한 하천 만들기 집중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등 진행

함평군이 하천 수질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며 쾌적한 하천 조성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하천의 선제적인 오염 예방과 생태 보전을 위해 기획됐다.

지방하천 환경지킴이는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하천을 순찰하며 천변 쓰레기 수거, 불법 투기 감시, 불법 어로행위 계도 등을 펼치며 하천 환경 오염 예방뿐 아니라 군민의 환경 의식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을 통해 해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처리해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하천 경관 유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함평=최일환 기자 6263739@gwangnam.co.kr

진도군의 인구가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바탕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이후 매월 평균 58명씩 감소하던 인구가 지난 3월 말 기준 전월 대비 9명 증가하며 4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 달 말에도 전월 대비 1명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이러한 인구 반등은 진도군이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한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과 함께 출산·보육,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여건 개선 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내 고장·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은 전 군민과 지역 내 기관·단체·사업체가 참여

해 인구 문제가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가족·지인·동료들이 실제 생활지나 근무지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권장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이어달리기(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되며, 현재까지 육군 제8539부대,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소방서, 국립남도국악원, 수자원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1개 기관·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지역 내 살거처 주소 갖기 분위기’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진도군은 출산율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출생부터 교육까지 자녀 1인당 최대 1

억1893만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는 1억743만원, 둘째 아이는 1억843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억189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출산장려금, 출생 기본수당, 입학축하금, 청소년 쿠폰(바우처), 고등학생 해외연수, 대학 신입생 장학금 등 총 1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전남형 만원주택 60세대, 청년공공임대주택 18세대, 간호·복지 인력을 위한 기숙사 30세

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 중이며, 청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일자리 지원, 근속장려금,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창의적이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도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다.

외부 인구 유입의 확대를 위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예비 이주자들이 일정 기간 진도에 머물며 일자리와 생활 여건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진도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3개월 동안 거주가 가능한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류 빈집을 리모델링한 ‘보배섬 하우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2년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계별 주거 지원 외에도 농가주택 수리비, 이사비용, 영농·어업 자재, 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지원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유입을 넘어 지역에서 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제24회 담양대나무축제에서 운영된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연휴 기간 굿은 날씨에도 6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담양대나무축제, 농특산물 판매 ‘성황’

수박·블루베리 등 6000만원 매출... SNS 홍보 등 인지도 ↑

담양군의 농특산물이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제24회 담양대나무축제에서 운영된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연휴 기간 굿은 날씨에도 6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축제에는 담양을 대표하는 19개 농특산물 생산 업체가 참여해,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수박, 버섯, 전통 장류, 약

주, 한과, 딸기 가공품 등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제품 시식 체험·페이스 페인팅 재능기부, 실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객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단순 판매를 넘어 담양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였다.

군은 이번 축제에 지역 축제와 연계한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직거래 장터 운영과 온라인 연계 판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갈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축제 기간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대표 농특산물 판매 소품 물인 담양장터(damyangmk.kr)는 오는 11일까지 5월 가정의 달 기념으로 전 제품 20%(전통 장류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

완도, 군목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

군민 의견 반영... 지역 정체성 강화·브랜드 가치 향상

완도군은 지역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군목(郡木)을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군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기존 군목인 ‘동백나무’에서 지역 고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은 동백나무를 군목으로 지정·사용해왔으나 전국 27개 시군의 군목도 동백나무임에 따라 완도만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군민 의견을 반영해 완도에서 자생하고 ‘완도’라는 지명을 담은 희귀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새로운 군목으로 지정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1978년 국내 식물 학계의 권위자인 고 민병갑 박사가 완도에서 처음 발견해 국제학회에 보고된 나무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빨간 열매는 사탕과 박에 정신을 뜻하며, 꽃말은 행복과 평화를 의미한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영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영광군은 16일까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내부검토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최종 대상

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상업·공공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반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하면 가정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월 4만~6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대한민국 최고 명품 한우 브랜드 울산축협한우”
2015, 2018, 2022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

역사의 숨결, 울산의 자랑!

제2회 울산축협 한우축제

5.16.(금) — 5.18.(일) [개막식 5.16.(금) 18:00]
남구 대화강 둔치 (태화교 밑)

봄향기 가득, 한우의 흥미로 물들다

한우 특석 구이터
1200명
동시 수용

한우도 먹고, 음악도 즐기고! [축하공연]

16일 (금) 김영아, 신세령, 버디림, 김송 나태주, 수근	17일 (토) 이영아, 임성걸, 정희성, 배재연 김다나, 만파라페릴리	18일 (일) 원연지, 김현희, 서지운, 나하나 안이숙, 싸이버거
--	---	---

주최: 울산축협한우 | 후원: 경상일보 | 협찬: 농업경제지주, 연수지주금인력위원회, 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